

이 사 회 회 의 록

서기 2025년 11월 14일 오후 06시 장학회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.

이사의 총수 5 명

출석이사의 수 5 명

감사의 총수 2 명

출석감사의 수 2 명

위와 같이 출석하고 이사장 조용진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금일 이사회를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고 하고,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심의하다.

제 1 호 의안. 2026년 예산안 심의 건

- ① 목적사업비 선정 및 집행
- ② 인건비 선정 및 집행

이사장 조용진: 이번 정기이사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이사님과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,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내년 26년도에도 장학회 소유인 사당동 건물의 리모델링 및 수선공사에 대비를 위해 그 자금을 일부 설정하려 합니다. 그래도 이번년도처럼 후원 대상 학생의 다양성 및 규모는 유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게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.

두번째로는 현재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. 현재 본 장학회의 경우 2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있으며, 대표 이사장님은 취임 이후 인건비 지급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. 현재 직원의 인건비 또한 물가나 업무수행량에 비교하면 그렇게 큰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공익법인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지 않은 선에서 각각 일정금액을 인상하는게 좋을 것 같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.

나누어드린 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이사님 및 감사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사 이종원: 올 한해에도 본 장학회를 위하여 힘써주신 이사님과 감사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올해 방수공사를 진행하긴 했지만, 건물의 연식이 오래된 만큼 앞으로 임차인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건물 수선 등의 비용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
이사 박찬원: 이종원 이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. 현재 후원을 유지하고,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건물에 사용될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갑자기 큰 금액을 사용하

여 장학회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.

이사 하은룡: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 발언하자면, 현재 경제적인 물가나 업무량 등 비교했을 때 확실히 임금이 적다는 것에 동의합니다.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와 지금까지 장학회 업무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만큼 충분하진 못하겠지만 일정이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외엔 다른 이사님들 말씀처럼 202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.

이사 일동: 이종원이사, 박찬원이사, 하은룡이사의 제안을 찬동하며 이의 없이 승인하다.

이사장 조용진: 이사님들의 호의에 감사드리며, 제 1호 의안인 2026년 예산안 심의 건이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되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, 회의가 종료 되었음으로 폐회를 선언하다.

회 의 종 료 : 오후 07시 30분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, 감사가 아래 기 명날인 하다.

2025년 11월 14일

의 장, 이사장 조 용 진

이 사 박 찬 원

이 사 하 은 룡

이 사 이 종 원

이 사 이 강 호

감 사 서 성 태

감 사 김 종 호